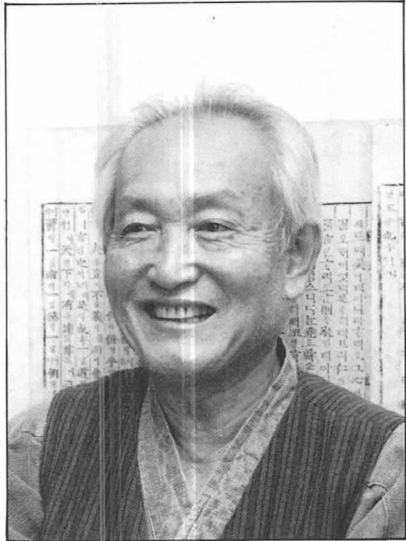


# 오늘 우리가 즐기는 민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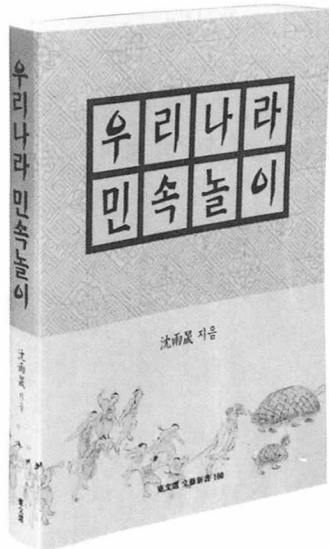
## 《우리나라 민속놀이》 펴낸 심우성씨



심우성씨.

민속학자 심우성(62)씨가 최근 《우리나라 민속놀이》(동문선)를 펴냈다. 20년전 《한국의 민속놀이》를 출간한 이후, 특히 최근 들어 우리 민속놀이를 일상생활에 도입하려는 학교교사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쇄도했다는 것. 심우성씨는 이 책이 우리 민속놀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는 공기나 그네뛰기, 비석차기, 닭싸움, 꼬리잡기처럼 지금도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가마싸움, 길쌈놀이, 골패 등 지금은 사라진 놀이까지 우리 민족이 즐겼던 놀이 62가지가 상세하게 소개된다. 놀이의 유래, 어원을 밝혀 전통 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놀이방법도 상세하게 소개해 당장이라도 그 놀이를 재현



해 신명나게 놀아볼 수 있게끔 했다. 놀이 장면을 담은 풍속화나 삽화를 군데군데 수록해 옛놀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밖에도 이 분야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어 참고문헌을 일일이 명기했고, 특히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이 펴낸 《조선의 민속놀이》를 참고해 북한의 각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함께 소개한 것도 이 책이 지니는 큰 장점이다.

“우리의 놀이를 잘 살펴보면 양치바른 마당 구석의 소박한 어린이 놀이에도 체력과 지능의 발달을 돕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과 젊은 아녀자의 기개를 돕는 씩씩한 놀이가 있고,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집단놀이에 이르기까지 다 제각각 속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우성씨는 민속놀이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즐기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로 나누어 사는 남북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도 승부에 목적을 둔 서양의 스포츠보다는 신명나는 화합의 놀이판을 벌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심우성씨의 생각이다.

우리 민속극의 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기록으로 남기고 몸으로 행하며 살아온지 30여년, 이제 심우성씨는 그 세월을 갈무리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그동안 수집해온 민속극 관련 물품과 자료 천여점을 전시하게 될 ‘공주민속극박물관’의 개관이 그 첫 작업이며, 우리 민속연극을 총괄적으로 고찰한 책도 펴낼 예정이다.

—박남정 기자

## 동문선 ‘문예신서’ 100종 출간

### ‘팔리지 않지만 좋은 책’ 고집

동문선(대표 신성대)은 우리 출판계에서 ‘팔리지 않지만 좋은 책’ 출판을 고집해온 몇 안되는 출판사 중의 하나다. 이 출판사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기획이 ‘문예신서’.

알찬 문화·예술서를 일반에 보급한다는 취지로 기획, 지난 88년 앙리 페이르의 《저주받은 시인들》로 출발한 이 시리즈가 최근 출간한 민속학자 심우성씨의 《우리나라 민속놀이》로 100종을 돌파했다. 평균 천부 이상이 팔리지 않았을 만큼 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목록만은 쪽정이 하나 없는 알곡만으로 채워져 있다.

《조선어속고》 《조선창극사》 《조선의 귀신》 《조선공예대관》 같은 우리의 풍속이나 전통예능에 관한 책들은 물론이고 《힌두교

그림 언어》 《몽고문화사》 《아시아 무용의 인류학》처럼 우리에게도 비교적 낯선 세계의 예술을 고찰한 책도 포함된다. “판매부수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펴내겠다”는 것이 100종 돌파를 맞은 신성대 사장의 소감이다.

한편, 동문선은 ‘문예신서’의 지속적인 발간과 함께 올해 연말부터 ‘완역상주 한전대계(完譯詳註 漢典大系)’의 발간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외국의 최신이론을 소개하는 전문잡지를 창간할 예정이다. 창간호는 1997년 봄호로 예정. 이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문고본과 함께 보다 대중적인 인문교양서도 출간할 계획이다.

—박남정 기자

# 아래아 한글 (IBM PC) 출력센터

-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 · 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 275-0196~7,  
265-9271 275-7143

팩 스 :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 SOGO0318

♣ 전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24시간출력  
기다리겠습니다!

## 대동전만

### “좋은 출력 좋은 책!”